

고물가 경기침체 공포

# 반도체마저 위태... 대외수요 둔화에 경기 회복세 '주춤'

## KDI 9월 경제동향 발표

고물가·금리 등 글로벌 여건 악화 수출 증가세 꺾여... 내수도 불통 제조업 중심 경기하방압력 확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국내 경기 회복세가 약해지고 있다고 경고성 진단을 내렸다. 중국의 봉쇄조치 등에 따른 글로벌 경기 둔화와 고물가, 금리인상 등 대내외적 영향이 국내 경기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분석이다. KDI는 이 같은 경기 하방 요인들이 단기간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KDI는 7일 '9월 경제동향'을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서비스업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대외 수요가 둔화하며 경기 회복세가 약해지는 모습"이라며 "글로벌 경기둔화의 영향이 파급되면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경기 하방 압력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지난 7월과 8월 "원만한 경기 회복세"를 언급했던 것과 달리 부정적 색



KDI는 7일 '9월 경제동향' 통해 국내 경기 회복세가 약해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사진은 수출 산적을 앞둔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

채가 보다 짙어졌다. 무엇보다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수출 증가세가 꺾인 점이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 달 수출은 1년 전보다 6.6% 늘어나는 데 그쳐 전월(9.2%)보다 증가폭이 낮아졌다. 8월 무역수지도 94억 7000만 달러 적자로 전월(-48억 1000만 달러)보다 적자 폭이 더 커졌다. 수출 증가세를 주도해온 반도체마저 7.8% 줄어 26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반도체 수출 가격이 전년 동월 대비 18.5% 하락해 반도체 수요가 빠르게 둔화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며 "반도체 산업의 경기하강은 향후 우리 경제의 성장세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에 대한 수출도 심상치 않다. 대중 무역수지가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처음 6달 연속 적자를 이어갔다. 대중국 수출액은 지난 6월 -0.8%에서

8월 -5.4%로 감소 폭이 커졌다. 중국의 내수 둔화와 함께 최근 청두, 선전 등 주요 도시가 봉쇄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고물가 흐름도 이어지고 있다. 6%대 육박했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석유류 가격 하락세로 지난 달 5.7%로 주춤하기는 했지만 물가 상승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 전망이다. 미국 등 주요국의 금리인상 움직임

으로 환율도 치솟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7월 말(1299.1원)보다 38.5원 높은 1337.6원까지 올라 1400원대 진입도 점쳐지고 있다. 소비와 투자 등 내수에도 불똥이 튀었다. 7월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판매는 승용차, 가구 등 내구재 감소로 증가세가 1.9%에 불과했다. 8월 소비자심리지수도 88.8로 전월(86.0)대비 소폭 오르는데 그쳤다. 설비투자도 일반 기계류와 운송장비가 감소하며 2.2% 증가에 그쳤다. 다만, 거리두기 전면 해제 등의 영향으로 서비스업 회복세는 지속됐다. 서비스업 생산은 전년보다 4.7% 늘었는데 숙박·음식점업(29.9%), 운수·창고업(12.4%) 중심으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정규철 실장은 "중국에서 다시 봉쇄조치가 이뤄지는 등 글로벌 여건이 더 안 좋아지고 있다"며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우려 요인들이 단기간에 해소되기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metroseoul.co.kr

## "5~6%대 높은 물가 오름세 장기 지속 전망" 유가상승 수출 직격... 상품수지 적자 전환

### 한은 BOK이슈노트

근원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지속성 확대 "중앙은행 차원 정책대응 필요할 때"

5~6%대의 높은 물가 오름세가 상당 기간 이어질 전망이다.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기대심리 안정을 위한 정책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7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BOK이슈노트 '고인플레이션 지속가능성 점검'에 따르면 최근 물가 오름세가 꾸준히 높아지면서 인플레이션 지속성도 크게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이후 근원물가의 오름세가 꾸준히 높아짐에 따라 근원물가가 인플레이션의 지속성 확대를 주로 견인했다.

한은은 국제원자재가격이 상·하 양방향 불확실성이 큰 가운데 러시아의 에너지 공급 축소, 이상기후에 따른 작황부진 등 공급측 불안요인이 잠재해 있어 유가와 식량가격의 반등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러시아가 최근 독일, 프랑스 등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을 전면 중단하면서 에너지 수급불안이 커진 가운데



5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한 시민이 장을 보고 있다. 이날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먹거리 물가는 지난해보다 8.4% 상승, 13년 4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뉴스1

데 동절기에 천연가스 공급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원유에 대한 대체수요로 유가 상승압력이 증대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뚜렷한 수요급감 요인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경기침체 우려가 큰 주요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갭은 올해와 내년 중 플러스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은 수요측 물가압력과 경제주체의 인플레이션 기대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앙은행의 정책대응에

따라서도 인플레이션의 지속성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중앙은행의 미흡한 물가 대응은 수요측 물가압력과 경제주체의 기대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쳐 지속적이고 높은 인플레이션을 야기할 수 있어서다.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불안해질 경우 물가-임금 상호작용 강화 등을 통해 인플레이션 지속성이 확대될 수 있다. 현재 국내 장기 기대는 물가목표(2%) 부근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자재 가격 반등 가능성, 수요측 물가압력 지속 등으로 높은 물가 오름세가 예상보다 오래 지속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오강현 한은 조사국 물가동향팀 차장은 "5~6%대의 높은 물가 오름세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도 4%대의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며 "인플레이션 기대심리의 안정을 위한 정책대응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백지연 기자 wldus0248@

7월 경상수지 10.9억만불 잠정 집계 전년비 흑자 증가폭 66억만불 축소

지난 7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3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다만 흑자폭은 전년 동기보다 66억달러 넘게 급감했다. 특히 상품수지가 10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2년 7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7월 경상수지는 10억 9000만달러로 3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다만 흑자폭은 전년 동월보다 66억 2000만달러 축소됐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수입 증가 속도가 수출 증가 속도보다 빨랐기 때문이다.

김영환 한은 금융통계부장은 "7월 경상수지는 중국의 경기 둔화 영향으로 대(對)중국 수출이 감소하는 등 수출 증가세가 둔화된 가운데 원자재를 중심으로 수입이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면서 상품 수지가 적자로 전환했으나 서비스수지와 본원소득 수지가 흑자를 기록했다"라며 "다만 상품수지가 적자 전환되며 전년 동월 대비 큰 폭 감소함에 따라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전년 동월 대비 큰 폭 축소됐다"고 말

했다. 이어 "상품수지는 수입 증가폭이 수출 증가폭을 상회하면서 적자로 전환했다"고 덧붙였다.

실제 수출과 수입의 격차인 상품수지는 전년 동기 55억 5000만달러에서 11억 8000만달러 적자로 돌아섰다. 지난 2012년 4월 이후 10년 3개월 만에 적자를 기록한 것.

수출도 전년 동기보다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경기 둔화에 따른 대중국 수출 감소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되면서다. 7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37억 9000만달러(6.9%) 늘어난 590억 5000만달러다.

석유제품 등을 중심으로 전년 동월 대비 21개월 연속 증가했으나 대중국 수출 부진 등으로 증가폭은 축소됐다. ▲석유제품 82.6% ▲승용차 26.3% ▲화공품 6.6% ▲반도체 2.5% 등이 증가세를 견인했다. 같은 기간 수입은 원자재 수입이 급증하고 자본재 등도 확대되면서 105억 2000만달러(21.2%) 늘어난 602억 3000만 달러다. 19개월 연속 증가세다. /백지연 기자

## "C뷰티에 잠식된 K뷰티 현주소 상기해야"

>> 1면 '메타버스 속력내는...'서 계속

### ◆중국, 메타버스로 소비·산업 동시 성장할 것

중국은 소비와 산업이 모두 왕성하게 이뤄지는 국가다. 메타버스도 소비(2C)와 산업(2B) 2개의 경로에서 모두

빠르게 성장중이다. '메타노믹스'로의 발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 중국 현지내 메타버스 시장 규모는 2021년 약 443억 위안(한화 약 8조 7926억 원)에서 2025년에는 4500억 위안(한화 약 89조 3169억 원) 까지 늘어 나 약 10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

고 있다. 특히, 중국 내 빅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메타버스 투자 및 인수가 활발하다. 주로 게임과 클라우드 분야에 이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중앙 정부는 메타버스 시장의 과열을 경고하고 나섰지만 올해 초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첨단산업 육성은 피할 수 없는 선택으로 민간협업 메타버스 생태계 구축 모

색해야 한다고 입장을 바꿨다. ◆중국에 기술력 뺏길까?

이같은 중국의 움직임에 국내 관련 업계는 중국이 메타버스 관련 기술을 한국에서 찾을 수 있다는 우려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 K뷰티 열풍으로 전례없는 황금기를 누리던 국내 화장품 업계가 중국에 기술력을 빼앗기면서 C뷰티로 전락한 사례가 있다. 당시 국내 굵직한 화장품 회사의 연구원을 중

국이 막대한 돈으로 대거 스카웃 하면서다. 이후 중국 현지에 한국과 비슷한 화장품이 대거 생겨났고 관련 산업이 활성화 되기 시작했다. 이에 K뷰티는 한계에 다달았다"며 "메타버스 관련 사업도 이와 마찬가지로. 전 세계적으로 앞서고 있는 한국의 AI, AR, XR 등의 신기술을 또 중국이 가로챌다면 앞서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빛나 기자 vitna@